"클라레 저그를 잡아라" 브리티시오픈 내일 개막

〈브리티시오픈 우승 트로피=적포도주를 담는 은 주전자〉

필 미켈슨이 13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진행된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 연습라운드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양용은 등 한국계 9명 출전 역대 최다

우즈 부활 샷…미켈슨 랭킹 1위 등극 여부 관심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가 5년 만에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 7305야드)로 돌아왔다.

브리티시오픈은 오는 1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개막해 나흘 동안 열전을 펼쳐 19일 새벽에 우승자가 가려진다.

대회 창설 150년만이자 회수로는 139회를 맞는 브리티시오픈은 험난한 코스와 접근을 불허하는 악명높은 날씨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자연과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선수에게는 모든 골퍼들의 꿈인 은빛 주전자 '클라레 저그'에 술 한잔을 따라 마실 수 있는 달콤함이 주어진다. 총상금 730만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서 우승자는 130만달러를 가져간다.

전세계에서 온 156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계 선수 9명이 출전해 역대 대회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 골프의 간판 최경주(40), 양용은(38)에다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 등 영건들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추문 뒤 복귀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우승 없이 보낸 시간을 보상받겠다고 벼르고 있고 2인자 필 미켈슨(미국)도 세계랭킹 1위에 오르겠다며 샷을 가다듬었다.

◇한국골프, 메이저대회 우승 다시 한번?= 이번 브리티시오픈에서는 역대 최다인 9명의 한국 및 한국계 선수가 출전자격을 얻어 우승 확률을 높였다.

2008년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권을 유지한 바 있던 최경주는 올해 스윙 교정을 완성하고 생애 첫 브리티시오픈 우승에 도전한다. 최근 3개 대회 연속 컷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용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 순위 3위에 올라있는 김경태도 생애 첫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 지난해 US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 지역예선을 통해 출전권을 따낸 전재한(20), 올해 브리티시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정연진(20)도 출전한다.

◇우즈 부활이냐, 미켈슨 세계 1위냐= 우즈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 출전하면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 마스터스와 US오픈에서 각각 공동 4위에 올랐지만 그밖에 대회에서는 톱10안에도 들지 못했다. 세계랭킹을 보면 현재 우즈가 266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필 미켈슨이 2위를 달리고 있다.

미켈슨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무조건 세계 1위가 되고 단독 2위를 하면 우즈가 5위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단독 3위를 할 경우 우즈가 15위 이하로 밀려나면 미켈슨이 1위에 오르고 단독 4위만 해도 우즈가 컷 탈락하면 1위에 등극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올드코스 17번홀 애증의 역사

지옥으로 가는 길…밀리면 OB, 당기면 러프, 항아리 벙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를 두고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 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일(한국시간)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가 열리는 이 코스를 두고 모든 선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골프계의 전설 샘 스니드(미국)는 1946년 브리티시오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하면서 "버려진 골프코스 같다"고 말했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의 공동설립자이자 골프의 성인으로 불리는 보비 존스(미국)는 1921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3라운드 전반에 46타를 친 뒤 11번홀 경기 도중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

골프의 역사를 간직한 올드코스는 이처럼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며 139번째 대회를 맞이한다.

5년만에 브리티시오픈을 다시 개최하는 올드코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악명높은 17번홀이다.

원래 파5였던 것을 파4로 바꿨던 17번홀은 '로드홀'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Road)이라는 뜻이다.

올해는 거리를 40야드 늘려 495야드 짜리 파4홀이 된 17번홀은 더 어려워졌다. 올드코스의 상징인 17번홀에 변화를 주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브리티시오픈에서 두차례 우승했던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은 "모든 것이 변한다. 17번홀의 명성은 알고 있지만 변화할 때가 됐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도그레그 홀인 17번홀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 아웃오브바운즈(OB)지역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당겨치면 위협적인 러프를 만나게 된다.

티박스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호텔을 겨냥해 캐리로 260야드를 날려야 페어웨이 오른쪽 끝자락 안전지대에 올릴 수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두번째 샷이 남아 있다.

그린 위 오른쪽을 노려야 하는 두번째 샷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시무시한 항아리 벙커에 떨어진다.

허리 높이의 이 벙커에 빠진다면 파 세이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000년 대회 4라운드에서 우승을 노리던 데이비드 듀발(미국)은 이 벙커에서만 4타를 치는 바람에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이 때 우즈는 72홀을 도는 동안 단 한번도 벙커에 볼을 빠뜨리지 않고 토마스 비요른(덴마크)과 어니 엘스(남아공)를 8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2005년 대회에서 최경주(40)는 이 홀에서 두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린 뒤 무려 5타를 잃고 홀아웃했다. /연합뉴스

박정환, 한·중 통합 천원 등극

박카스배 한중천원전 3국

천야오예 꺾고 역전 우승

한국과 중국의 최강 신예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한중천원전에서 박정환(사진)이 천야오예를 이기고 통합천원에 올랐다.

박정환 8단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 내 특설대국실에서 열린 제14회 박카스배 한중천원전 제3국에서 중국의 천야오예 9단을 맞아 319수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흑으로 1집반승을 거두고 종합전적 2-1로 우승을 차지했다.

선실리 후타개의 전법으로 국면을 리드해 나가던 박정환은 중반이후 대마공격에 실패하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긴박한 초읽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며 우세를 점했고 끝내기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튼튼한 길을 선택하는 안전운행 끝에 승리를 이끌어냈다.

대회 전 천야오예에게 3전전패를 당하고 있던 박정환은 11일에 열린 1국에서도 힘없이 패하며 우승전망을 어둡게 했었다.

그러나 12일 열린 2국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끈질긴 승부 끝에 신승한데 이어 13일 대국마저 이기며 2-1 극적인 역전우승에 성공, 자신이 '한국바둑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7세(박정환)와 21세(천야오예)의 젊은 기사간의 대결로 한중바둑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기회였던 한중천원전은 당초 천야오예의 우세가 예상됐었다.

박정환에게의 3연승을 포함해 한국선수들에게 5연승을 거두고 있었고 통산전적에서도 35승14패로 한국만 만나면 펄펄 날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환은 첫 승을 내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역전우승을 일구어내며 앞으로 세계1인자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될 라이벌과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한국과 중국의 천원 타이틀 보유자가 맞대결하는 한중천원전은 이창호 9단의 4회우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7승6패로 한국이 앞서고 있었고 이번 박정환의 승리로 8승6패로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

구리 9단이 7회(2003년)부터 12회(2008년)까지 6회 연속 참가하며 대회최다 출전기록과 최다우승(이창호와 공동 4회)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정환은 우승상금으로 1만달러(약1200만원)을 받았고 천야오예는 5000달러를 받았다. /연합뉴스

최나연, 세계 랭킹 6위로

신지애는 1계단 추락 4위

제65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2위에 오른 최나연(23·SK텔레콤 사진)이 세계 랭킹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13일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을 보면 신지애(22·미래에셋)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자리를 맞바꿔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2주째 크리스티 커(미국)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2위로 뒤쫓고 있다.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폴라 크리머(미국)가 13위에서 7위로 껑충 뛰었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19일 귀국

23~25일 '아이스 쇼' 참가

'피겨 퀸' 김연아(20·고려대)가 새로운 아이스쇼 무대를 선보이러 한국에 돌아온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대표 박미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중인 김연아가 오는 23~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특설링크에서 열리는 '삼성 애니콜 하우젠 2010 올댓 스케이트 서머'에 참가하러 19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5월 치른 올해 첫 아이스쇼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던 본드걸 연기와 함께 지난 시즌 갈라 프로그램 '타이스의 명상곡'을 선보여 축하와 감사의 무대를 선보였던 김연아는 이번에는 '내일의 꿈'을 주제로 미래의 성취를 연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